



합병...합병의 선물

사례

U사장은 배우자와 함께 ABC 식당과 XYZ 식당을 법인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ABC 식당은 10여 년 전에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XYZ 식당은 ABC 식당 경영 경험을 믿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는지 4년 전에 시작한 이후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U사장에게 XYZ 식당은 항상 부담이었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사업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U사장은 XYZ 식당의 적자가 계속 쌓이면서 ABC 식당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XYZ 식당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ABC 식당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U사장은 이러한 상황을 배우자와 상의한 끝에 XYZ 식당을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을 처분하기로 한 이후 적당한 매수자가 나오자 U사장은 나름대로 많이 양보하고 사업체를 매각했습니다. 매수자가 원하는 자산만 구매하는 것을 희망해서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를 취했고 매각 이후 XYZ 식당은 회사 이름만 남은 껍데기 회사가 되었습니다.

U사장은 ABC 식당과 XYZ 식당의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회계사를 찾아갔습니다. ABC 식당은 소득이 있으므로 세금을 내고, XYZ 식당은 손실이 발생하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 형태가 과거부터 반복되었고 올해도 같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ABC 식당과 XYZ 식당을 합산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데도 ABC 식당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사로부터 ABC 식당과 XYZ 식당을 합병하면 ABC 식당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합병(Amalgamation)이란 두 개 이상의 법인이 법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시장지배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을 운영할 때에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흑자가 발생하는 기업이 사용하여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세법상 법인의 손실은 해당 법인의 향후 20년 동안 발생하는 이익에 대응하여 공제하여 향후의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세방법은 같은 법인 내에서 손실과 이익이 발생할 때만 활용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회사 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한 회사가 적자기업이고 다른 회사가 흑자기업일 때는 적자기업의 과거 손실을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두 회사가 합병할 때에는 적자기업의 과거 손실을 새로운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응하여 공제할 수 있는데 이는 합병 전 두 회사의 과거 세금신고 내용이 합병 후 새로운 회사의 과거 신고 내용으로 각각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법상 이점만을 고려하는 무분별한 합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합병을 통해서 경영권이 바뀔 때에는 과거의 손실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XYZ 법인은 더 이상 사업을 운용하지 않으므로 과거 손실을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XYZ 법인의 과거 손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ABC 법인과 XYZ 법인을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합병 후 생길 새로운 회사는 ABC 법인에 XYZ 법인의 과거 세금 내용만 추가한 형태로 ABC 법인의 법적 상호만 변경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절세효과를 위해서 XYZ 법인의 과거 손실을 계산해보니 누적손실이 총 \$250,000가량 되었습니다. ABC 법인이 매년 \$80,000가량의 이익을 신고하고 있으므로 합병을 통해 XYZ 법인의 과거 손실을 활용하면 새로운 회사는 앞으로 3년간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해결책 및 결론

합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새로운 회사를 국세청에 등록하고 기존 회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결산시에 두 회사의 상호 채권 채무를 없애주고, 재무제표를 합산하고, 새로운 주식 발행에 대해 기록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U사장은 향후 새로운 법인이 얻을 \$250,000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러한 불편함을 모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서 사업체를 매각하고 이제는 껍데기 회사가 되어버린 XYZ 법인을 청산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던 U사장에게 합병을 통해서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XYZ 식당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U사장은 당분간 ABC 식당운영에 전념해서 XYZ 식당에서 발생한 손실을 빨리 복구하고 ‘합병의 선물’을 누리는 데 온 힘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